

1.종교다원주의 배경
1.동성애 반대
1.차별금지법 반대
1.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117호
3월 16일
2019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오직 말씀으로 사명 감당하는 사역자

총회신학교 목회대학원 2019학년도 제1학기 입학식 및 개강예배



설교
임종달 목사
총회신학원장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목회대학원 2019학년도 제1학기 입학식 및 개강예배가 지난 3월 4일(월) 오전 11시 총회본부 대성전에서 드려져 마지막 때 땅 끝까지의 복음전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목대원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사

회로 시작하여 목대원 교수 최병진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목대원장 임종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임 목사는 마 4:10, 11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말씀으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변질된 복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을 본받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전하고 "비록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지만 오직 믿음,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주신다"고 강조한 뒤 "말씀으로 깨어 있어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나아가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축도
최광연 목사
총회총회장



대표기도
최병진 목사
총회신학원 교수



사회
윤기석 목사
총회신학원 사무국장

이어 교수소개가 있었으며 목대원장 임종달 목사는 신임생들을 환영하며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전파를 위해 오직 한 길만을 가는 교단의 신학교에 입학한 것을 축복하고 신학교 및 목대원 직분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목대원 원우회장 전우진 전도사의 헌금기도 후 교단 증경총회장 최광연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점심식사 후 총회신학교 목대원생들을 대상으로 교단 총회 정찬식 목사를 강사로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사역을 위한 실제적인 메시지를 선포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될 것 다짐

대표회장에 이정우 목사, 상임회장에 교단 부흥사회장 신재영 목사 선임

경북기총 제19회 정기총회 마쳐



신재영 목사

경북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정희 목사/이하 경북기총) 제20회 정기총회가 지난 2월 15일(금) 안동서부교회(이정우 목사 시무)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세 안동시장을 비롯한 23개 지역연합회 임원과 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1부 개회예배는 대표회장 이정우 목사의 인도, 상임회장 설정수 목사 기도 후 이정희 목사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하고, 증경회장 우종후 목사의 축도로 제1부예배를 마쳤다.

제2부 정기총회는 대표회장 이정희 목사의 사회로 수석상임부회장 신재영 목사의 기도 후 회순에 따라 회부처리를 마치고 임원 선출이 있었다.

새로 선출된 임원은 △대표회장 이정우 목사(안동서부교회) △대표부회장 설정수 목사(영상목사) 임영식 장로(이천제일교회) △상임회장 신재영 목사(새길전) △수석상임부회장 방영팔 목사(포항은빛)



△본부장 김대원 목사(홍영광) △수석본부장 조근식 목사(포항침례) △사무총장 김길동 목사(봉동) △수석사무처장 유원식 목사(포항열림) △상임총무 김봉환 목사(금전) △수석부총무 김용수 목사(영주) △상임서기 박금배 목사(하늘문) △회록서기 박병구 목사(사미) △회계 이상길 장로(단구) △감사 남세환 목사(의성) 지태룡 장로(안동광성) 간호남 목사(영주중앙) 한상봉 장로(구미상모) △경북기독교신분위원장 이정희 목사(주시량) △이단대책위원장 권정호 목사(봉화제일) △교회성장위원회 이현세 목사(황금동) △종교편향대책위원장 장재덕 목사(영전서문) △동성애대책위원장 이관영 목사(영전

문화) 등이 선출됐다.

이정우 목사는 인사말에서 "부족한 사람이 역사의 하에 대표회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섬기는 자세로 바른 방향성과 연합정신으로 경북기독교총연합회를 섬기며 나가겠습니다.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고 했다.

경북기총은 3월 임원회를 시작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 영호남대회 참석, 8.15 연합집회, 수련회 등 연중 사업과 지역에서 일어나는 반기독교적 현안에 대해 지역연합회와 함께 대처해 나가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회’ 열려...청년봉사선교회

국가안보를 위해, 교회의 부흥과 민족복음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

은혜와진리교회 청년봉사선교회 주최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지난 3월 2일(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안양성전 카이노스성전에서 성령충만한 은혜 속에 열렸다.

참석한 많은 성도들은 국가의 안보와 교회의 부

흥을 위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날 기도회는 청년봉사선교회 지도부장 권영호 장로의 기도, 안양, 수원, 안산성전 청년들의 특송, 김정훈 목사의 왕하 19:14-19 말씀을 본문으로 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세웁니다'라는 제목의 설교 순서로 개회예배를 드린 후 청년들의 주제발표회, 창작성극 공연, 합심기도회 순서로 2부 행사가 진행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주제의 발표회에서 수원성전 이현준 형제 등 5명의 청년이 강사로 나서 각기 다른 다섯 가지의 소주제로 강연하며 이 시대에 청년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153 홀리 프로젝트의 창작 성극으로, 실제 탈북한 성도의 간증을 바탕으로 창작한 뮤지컬 '주님, 이 손을' 공연이 펼쳐져 성도들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로운 신앙생활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었다.

성극 관람에 이어 안양성전 청년봉사선교회 권



‘내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벧전 3:15)



조용목 목사

성경에는 소망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을 “소망 없는 사람”과 “소망에 관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분별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두 방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변절한 후손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86세가 되었어도 자식이 없자 아브라함은 약속이 다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그 약속의 성취 방법에 대하여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내 사라의 충고를 좇아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일로 인하여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서 곤혹스럽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 ‘아브람’과 ‘사래’를 많은 무리의 아비, 열국의 아비라는 뜻의 ‘아브라함’과 ‘많은 무리의 여주인, 열국의 아미’라는 뜻의 ‘사라’로 바꾸어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있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름을 바꾸어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드디어 그 아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어서와 아람을 낳았고 아람은 열두 아들을 낳았으며, 그 열두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망을 품고 인내하려면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거둬서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좇아 임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언약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으며,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은 매우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져 선을 이루게 되는 소망(롬 8:28),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소망(롬 8:24, 26), 영생과 아울러 후사가 되는 소망(딤후 3:7),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게 되는 소망(골 2:12),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고전 15:42~44), 천국에서 살게 되는 소망(요 14:23)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깊고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합니다.

또한 세월과 가진 것들을 세상의 헛된 영광과 썩어질 것들을 위해 허비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는 것을 위하여 사용하게 합니다. 또한 환난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근거가 없는 소망은 슬픔과 후회를 낳게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사상, 제도, 노력은 허망하게 됩니다. 허다한 우상종교와 무속 신앙은 사람들에게 헛된 소망을 갖게 하여 사람들이 소망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들은 사람들이 헛된 소망을 버리고 누구에게나 항상 있어야 할 소망을 가지도록 한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는 불멸의 소망, 산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전 인류의 소망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모두 실제적인 소망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것을 여러모로 체험하지만 그 모든 소망을 완전한 현실로 체험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포토뉴스



교단 총회신학원(원장 임종달 목사)은 지난 3월 4일(월) 2019학년도 총회신학교 및 목대원 입학식 및 개강예배에 앞서 2층 회의실에서 교수회의를 갖고 2019학년도 1학기 수업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회’에서는 탈북성도들의 간증을 바탕으로 창작한 뮤지컬 ‘주님, 이 손을’ 공연이 펼쳐져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었다.

요셉 회장의 인도로 성도들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과 민족복음화를 위해, 국가안보와 한국교회를 위해, 교회



와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였다.

한장총, 종교인과세 1년 점검 및 설명회

정교분리 헌법정신 침해해서는 안 돼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지난 3월 4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한국교회연합과 함께 종교인 과세 1년을 평가하고 종교인과세 실무 안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18년부터 시작하여 1년이 되는 종교인과세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3월 10일로 다가온 지급명세서 작성신고에 대한 실무적인 안내를 위한 설명회이다.

인사말을 한 한교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종교인과세는 태어나서는 안 될 법'이라고 전제를 하면서도 '악법도 법'이라는 인식하에 한국교회가 적절히 대처하여야 하기에 이런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정교분리 헌법정신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이것이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TF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이라는 것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연주 국회의원은 인사말에



서 "그간 입법 활동 중에 종교인과세에 대하여 기독교는 교회의 재정관련 의사결정의 시스템을 갖고 있으나 다른 종교 중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이 집행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따라서 "종교인과세는 기독교에 대한 평형을 잃은 법제정 추진이라고 판단"하여 입법반대와 균형 있는 법제정을 위하여 힘을 다하였음을 밝혔다.

그래서 "종교과세가 아닌 종교인과세로, 목회활동비 34개 항목의 목회활동에 대한 것은 비교세로 하고 목회자 급여부분만 과세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주제발표에서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인 서한제 박사가 법학자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세무사인 이석규 박사가 세무 전문가 입장에서 종교인과세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개혁신교단협, 3.1절 기념 연합예배

(사)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 3개 단체 주관



(사)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의(이하 개기협)는 지난 2월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여전도회관 루시시기념관에서 (사)세계개혁교회연합회(이하 세계연), (사)한국개신교단협의회(이하 한기교협) 등 3개 단체 연합으로 함께 3.1절 제100주년 기념연합예배를 드렸다.

양정섭 목사(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이승권 목사(예장합동개혁신교회 총회장)의 기도, 김형동 목사(예장열방총회 부총회장)의 성경봉독, 개혁중앙단의 찬양, 김병섭 목사(예장통합총회)의 색소폰 특별연주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옥섭 목사(예장기독교총회 증경총회장)는 '신부신앙의 횃불을 드는 영적 삼일절이 되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한 3.1절을 통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어 준비된 신부로서 복된 역사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전했다.

이여진 합심기도시간은 임정태 목사(예장통합총회 상임총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영춘 목사(한기개협 이사)가 '한국교회와 1,200만 성도를 위하여', 김성환 목사(예장기독교총회 증경총회장)가 '일본회개 촉구와 우리 땅 독도 지키기 위하여' 기도를 인도한 후 이승권 목사(예장합동개혁신교회 총회장)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후 만세삼창으로 마쳤다.

이날 양정섭 목사(한기개협 이사장)는 인사말씀을 통해 "이 나라 이민족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WCC에 속지 말고 동성애를 반대하며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기도하고 크리스천들은 애국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일본에 속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부촉했다.

동반교연, 뉴스앤조이 후원교회 공개

27개 교회 중 9개 교회 후원 중지 밝혀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에 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쿼인신학을 강력히 옹호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국교회들을 조롱하는 뉴스앤조이를 후원하는 교회명단을 공개하였다.

동성에 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에서는 2019년 1월 10일 쿼인신학을 강력히 옹호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국교회들을 조롱하는 내용을 집중 보도하고 있는 뉴스앤조이를 후원한다고 알려진 28

개 교회에 대하여 후원중지를 공식 요청하였다.

후원중지 요청을 받은 27개 교회 중 9개의 교회는 앞으로 후원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후원을 중지하겠다고 정식 공문을 보내온 여려 교회는 쿼인신학을 강력히 옹호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국교회들을 조롱하는 뉴스앤조이의 기사 목록을 보고 매우 큰 실망감을 표하였다.

뉴스앤조이를 후원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이미 후원을 중지한 교회가 4개 있었

며, 후원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후원하겠다고 밝힌 교회는 4개에 불과하였다. 후원중지 요청을 보낸 10개 교회 중 2개는 우편물이 반송되어 왔으며, 8개 교회는 연락이 되지 않아 회신을 들을 수가 없었다.

후원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뉴스앤조이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힌 교회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강남교회, 일산에 있는 일산은혜교회, 서울 용산구에 있는 중앙루터교회, 경기도 안양에 있는 석수중앙교회 등 4개 교회였다.

루터대학교, ISO 9001 인증 획득

소규모 종교계 대학 최초로 인증 받아



축하고 있음이 인증되어, 이번에 표준 인증인 ISO 9001 품질경영인증시스템을 받았다.

권득철 총장은 이날 "ISO 9001 인증을 획득한 것은 루터대학교가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교육 전 분야에 대한 혁신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대학 혁신 지원 사

업에서 최우수 등급 대학으로 인정받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더불어 "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종착점에서는 사회공헌(디아코니아)을 실현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여 소규모 종교계 대학의 플랫폼이 되는 대학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표준 품질경영시스템(ISO9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규격으로, 국내에서는 한국인정지원센터 KAB(Korea Accreditation Board)가 ISO로부터 인증 권한을 위임받아 국내의 산업 전반에서 다양한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루터대의 ISO9001:2015 인증은 한국인정지원센터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사인증원(SPC)(원장 김연성)이 심사·평가하여 해당 인증을 부여받았다.

3.1 기독교정신 계승 한반도 평화 헌신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3.1절 기념예배 및 기도회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진목 목사, 상임회장 김진호 목사, 상임총무 김탁기 목사)는 3.1절 100주년기념예배 및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지난 2월 28일 여전도회관에서 드리고, 31장신 계승,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신진목 목사의 사회로 이규희 목사의 기도, 김동권 목사의 설교, 31절 신으로 나라를 굳게 지키기 위해(김해철 목사), 북한 핵무기 완전폐기와 북을통일(조원집 목사), 한국교회 개혁과 성장(최병호 목사), 혼란한 정치권의 안정과 민생경제회복(류형렬 목사) 등을 위한 특별기도, 김탁기 목사의 광고, 최병두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다.

김동권 목사는 '3.1운동과 현실문제'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3.1만세운동은 한국인 모두가 일사각오의 자세로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한 독립운동이며, 민족해방운동이고, 비폭력 평화운동이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교인들과 국민들은 비무장으로 일본의 총칼에 맞서 국권을 빼앗긴 나라를 가슴에 품고, 대한독립만세를 목이 터져라 불렀다"고 강조했다.

1부 예배에 이어서 김병운 목사의 사회로 가진 3.1독립선언문 및 격려사, 공산평 목사의 시낭독, 장병찬 목사의 독립선언문 낭독, 홍정이 목사의 격려사, 이진산 전 장관의 특강, 한창영 목사의 결의문 낭독, 한동철 목사 와 윤석호 목사의 구조제창, 이흥규 목사의 내빈소개, 유홍목 목사의 만세삼창, 배터선 목사의 마침기도 등의 순서로 열렸다.

청년선교 위한 생명나무숲FC 창단식

축구선교로 복음통일과 전도의 길 열어

민족복음통일시대를 준비하며 영성과 전 문성 그리고 좋은 품성을 갖춘 다음세대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생명나무숲교회(담임 장한일 목사)가 지난 3월 1일(금) 마포구 난지천 잔디축구장에서 3.1절 100주년 기념 생명나무숲FC 창단식"을 갖고 축구선교의 첫

발을 시작했다.

생명나무숲교회는 공공성과 공공회성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공동체사역을 전개하고 있는 공동체 교회이다.

장한일 담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19)'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도구인 축구를 통해, 불신청년들과의 관계 전도의 길을 열어나가고 건강한 스포츠 정신을 기반으로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영육의 건강한 삶을 누리며, 동시에 공동체 팀워크를 다지므로 축구선교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자 생명나무숲FC를 창단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창단식에서 감동으로 위촉받은 장민혁 장립준비위원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저개발국 어린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친과 동시에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해외축구선교의 도구로 사용되고자 생명나무숲FC 창단을 준비했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지역교회와의 리그전을 비롯해 불신자 중심의 일반 축구팀과도 교류해 크리스찬 축구팀으로서 복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비폭력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버니스 킹 목사, 남북 문제는 비폭력 평화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마틴 루터 킹 비폭력사회변화센터 대표이자 인권운동가인 버니스 킹 목사가 지난 3월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버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비로소 평화가 넘치는 세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니스 킹 목사는 회견에서 남북문제에 대해 언급, "이 문제는 아버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주창하신 비폭력 평화주의 철학과 방법론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남북이 각종 문제를 놓고 서로 대화와 소통을 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폭력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한 버니스 킹 목사는 "남북 간의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 역시 긴밀히 협력하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 세



계 평화를 위해서 일사적 해결책인 전쟁이 아니라 비폭력을 통한 긴밀히 협력하고 대화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진보와 보수세력의 갈등에 대한 질문에서는 "이 역시 상대와 끊임없이 대화하며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같은

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버니스 킹 목사는 비폭력 혹은 인권운동을 주도하여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공식 후계자로 부모님의 유산인 비폭력인권운동을 계승 발전시켜 더 평화롭고 정의롭고 인간적인 세계를 만들기 위해 비폭력 365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국제사회가 존경하는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필리핀선교 체계적으로, 교육선교에 중점

세션협 제134차 월례회 성민교회에서 개최

세계선교협의회(회장 한규섭 목사, 이하 세션협) 제134차 월례회가 지난 2월 28일

(목) 오전 11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 27번길 46에 위치한 성민교회(담임 박성선

목사)에서 1부 예배, 2부 회의 순으로 진행하고 필리핀선교사역에 교육선교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서기 진인숙 목사(지주총교회)의 인도로 시작된 제1부 예배는 김순양 목사(예수사랑선교교회)의 대표기도, 증경회장 오광근 목사(새빛교회)의 설교순으로 이어졌다.

오목사는 행 20:24 말씀을 본문으로 '하루의 삶 속에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였음을 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큰 은혜를 주셨다.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영혼 구원과 선교에 헌신"고 강조했다.



부산신학교 2019년 1학기 개강 예배

부산신학교(학장 한명집 목사)는 지난 3월 4일(월) 오후 7시 동신학교(순복음세움교회·담임 정기영 목사)에서 2019년 1학기 개강예배를 드리고 한 학기 동안 배움의 열정을 불태울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예배는 총무 김태주 목사의 사회로 강광수 목사(순복음아미교회)의 대표기도, 최계순 목사(순복음은혜교회)의 성경봉독, 서상권 교수(고신대히브리어교수)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서 교수는 엡 3:7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님을 똑바로 전하는 공급자,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교화다운 교화를 세우기 위하여 스스로가 제대로 된 연결을 하는 좋은 마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그리기 위해 신학생들이 제대로 배워야 할 것”을 강조



하였다. 이어 김연옥 목사(행복한신교회)의 봉 헌기도, 경남지방회 증경회장 황용현 목사(은혜와평강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성도들이 되자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이성석 목사)는 지난 2월 26일(화) 오전 11시 경남 양산시 동면 곡리길 16에 위치한 순복음은혜교회(담임 이순애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신홍섭 목사의 사회로 재무 윤득주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서기 성기찬 목사의 느 2:11~20 말씀을 본문으로 한 ‘무너진 곳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설교, 감진희 목사(한우리교회)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박기만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2부 월례회에서는 지방회장 이성석 목사가 교단과 지방회 보고사항을 전달하고, 각종 회무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순복음은혜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진 후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네팔 선교사 ‘목사 임직 및 선교사 임명예배’

대우자 빅림 선교사와 심진숙 선교사 파송

은혜와진리교회 선교위원회

네팔에서 사역하게 될 대우자 빅림 선교사에 대한 목사 임직식과 빅림 선교사와 심진숙 선교사에 대한 임명예배가 지난 3월 4일(월) 오후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아가 패성전에서 네팔선교회를 비롯한 세계선교연합회 임회원과 교역자들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드려졌다.

이날 예배는 이석호 목사의 사회로 선교위원장 권영호 장로의 기도, 미국하나님의성회 최완기 목사의 출 15:22-26 말씀을 본문으로 한 ‘광야 대학’이란 제목의 설교, 임직

식 순으로 이어졌다.

최완기 목사는 설교를 통해 “구원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기쁨과 감격 뒤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기 마련”이라고 강조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이를 자신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는 계기로 삼아 영적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권능을 체험하며 헌신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은혜와진리교회 당회장 조용목 목사의 집례로 서약, 안수기도, 공포 등 임직

식이 거행되었다.

조용목 목사는 이들에게 선교사 임명장을 수여하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강하고 담대하여 훌륭히 선교사역을 수행하도록 축복해 주었다.



달천순복음교회 창립감사예배, 부흥 위해 기도

충주지방회

충주지방회(회장 윤병하 목사)는 충주 달천순복음교회(담임 박성환 목사)에서 지난 3월 5일(화) 오전 11시에 창립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창립감사예배는 지방회장 윤병하

목사(한우리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 서기 진현배 목사(생극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전우진 전도사(순복음심기는교회)의 특송, 교단 증경총회장 김상용 목사(청주중앙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욥 8:5-7 말씀을 본문으로 ‘심히 창대할 장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진실 되게 사역을 감당하면 뭉툼 교회가 심히 창대하게 부흥하게 될 것”이라며 한 잊게 목회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을 축원하였다.

계속해서 지방회장 윤병하 목사의 창립선포, 지방회 총무 이범구 목사(새생명순복음교회)의 권면, 증경지방회장 김기진 목사(제천순복음양문교회)와 김운배 목사(오창중앙순복음교회)의 권면, 증경총회장 김상용 목사(청주중앙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창립감사예배를 은혜가운데 마쳤다.

예배 후에는 달천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애잔과 교제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한편, 달천순복음교회는 15년 전 청주중앙순복음교회의 지교회로 개척되어 오다가 김상용 목사의 특별배려로 완전 독립하게 되었다.

달천순복음교회 주소 : 충북 충주시 하용두 2길47, 전화 : 010-6750-1882(담임 박성환 목사)



주열매교회 창립, 복음전파 위해 헌신 다짐

충남지방회

충남지방회(회장 오일선 목사)는 지난 3월 12일(화) 오전 11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길 13-10에 위치한 주열매교회(담임 이훈 전도사)에서 동교회 창립 감사예배를 드리고,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하는 한편, 부흥하고 성장하여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지방회 총무 전홍식 목사(순복음심기는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부회장 김순구 목사(사랑이넘치는교회)의 기도, 재무 김영희 목사(순복음장대교회)의 성경봉독, 총회목회대학원위원장 전우진 전도사(순복음심기는교회)의 은혜로운 특송, 지방회장 오일선 목사(순복음포도원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오 목사는 이날 행 1:8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란 내용으로 축복하고 격려했다.

이어 지방회장의 창립선포와 전도사 임명장 수여 및 취임패 증정, 증경지방회장 장

호순 목사(순복음금강교회)의 권면, 오정목 목사(신일복음교회)의 축사, 회계 한정숙 목사(예수사랑교회)의 헌금기도, 이훈 전도사의 광고, 교단증경부총회장 조원익 목사(추계교회)의 축복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끝으로 모두 마쳤다.

헌신과 희생으로 섬기는 선교 다짐

지방회장에 김화영 선교사 선임

필리핀지방회

필리핀지방회는 전국이 미세 먼지로 인해 고통 받는 고국을 위해 미세 먼지를 하루 빨리 제거하기를 기도하면서 지난 3월 11일~12일 앙헬레스 클락에서 제28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회장 김화영 목사의 사회로 총무 이인로 목사의 대표기도, 서정복 목사(선교국 국장)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서 목사는 갈 3:23-29 말씀을 본문으로 한 ‘최고입니다! 그러나 하나 더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받는 자의 입장은 기쁨과 감사다. 주는 자의 기쁨은 희생

과 헌신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입장에서 는 늘 감사다”라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모두 값비싼 존재들이다. 최고의 것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 더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것은, 받는 입장을 넘어서서 헌신과 희생의 입장으로 섬겨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초년생 선교사일 때 선교의 현장에서 받았던 선배들의 섬김을 이제는 후배들에게 주는 자의 자리로 가서 가까이 자신들을 희생의 자리에 내려놓고 거기서 긴밀한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을 가지길 기도한다며 선교사들이 현지 지역에서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사역하는 것처럼 지방회 회원들 안에서 그렇게 서로를 섬겨주는 자리로 가서 헌신과 고통을 저지르는 지방회가 될 것”을 권면하였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회장에 김화영 선교사, 부회장에 이인로 선교사, 총무에 이요셉 선교사가 선출되었다. 또한 정영기 선교사와 문승근 선교사, 고주균 선교사, 신한철 선교사, 심현숙 선교사가 지방회의 신입회원으로 가입되었다.

모든 회원들은 28차 필리핀 지방회 정기총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합쳐준 총회와 선교국, 그리고 총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섬김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감당하고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번 필리핀지방회 정기총회에는 교단총회에서 선교국장 서정복 목사와 선교국 차장 임형순 목사가 함께했다.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목양신문 지면보기

네이버검색창에서 '목양신문' 접속후 '목양신문 보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목양신문 이메일
mok2677@naver.com

믿음으로 영적인 선택을 하는 삶 다짐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정석현 목사)는 지난 3월 11일(월) 오전 11시 진리외빛교회(담임 오용득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의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예배는 김남수 목사의 찬양인도 후 오용득 목사(진리외빛교회)의 사회로 시작

하여 부회장 박용열 목사(오성사랑교회)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사모회의 특송, 지방회장 정석현 목사(행강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수 2:1~7 말씀을 본문으로 ‘붉은 줄’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라합이 창문에 매달아 놓았던 붉은 줄은 하나님과 우리의 삶 사이에도 매어져 있어야 할 믿음의 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광우 목사(새생명교회)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김기진 목사(벤엘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월례회를 통해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한 후 진리외빛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특별히 준비한 선물(도라지정)을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 생명의 말씀 ■



김 상 용 목사

· 교단 중경총회장
·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당회장
· 청주지역 기독교연합회장 역임
· 순복음청주신학교 학장
· (사)한국기독교교단협 대표회장 역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대한 소명과 복음을 전하는 방법,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복음에 대한 소명과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바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

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8-20)고 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아야 전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자격은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사마리아 성 밖의 네 문둥병자는 아람 진영에 갔는데 모든 군사들이 도망간 것을 알고 서로 양식을 나눠 먹고, 보물을 숨기다가 이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기쁜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함으로 그 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인인 사마리아 여자도 전도했고, 나이만의 여종도 전도했습니다.

복음 전도의 시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또한 전도의 대상은 만민입니다. 우리 교회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중국인, 스리랑카인, 미국인들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의 대상은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동서양 오대양 육대주를 막론합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는다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고, 에스겔 선지자는 파수꾼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2. 성경적인 전도 방법

1)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도자의 가장 기본되는 사항으로서, 즉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이 받아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16절)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는 말씀처럼 그는 복음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훌륭한 학식을 갖춘 사람이 복음 전파에 전 생애를 바쳤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전 5:17)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변

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그들이 보고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변화된 모습이 큰 전도의 증거가 됩니다.

3)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하다가 꺾박당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구역장은 10명을 쫓더니 1명이 되어 어찌 된 일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예베드리라고 하면 피해서 지존심이 상해서 구역예배를 안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구역장은 구역원이 없어 손녀딸을 데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크게 부흥했습니다.

4) 최선을 다한 후에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윌로우 크릭의 교육목사인 더 스트로벨 목사는 ‘사카고 트리뷴’ 법률 담당자로서 14년간 일하다 회심했습니다. 그가 기자로 일했을 당시, 마감 시간에 쫓겨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이 마감 시간을 잘 넘길 수 있게 도와주소시오”라고 기도해서 마감스트레스를 잘 넘기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던 편집국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신난 그 목사님은 신문사에서 친한 직장동료에게 열심히 전도했지만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불쾌할 정도로 냉담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낙심을 한 그 목

사는 전도를 그만 두었고, 그 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몇 년 후, 그 목사님은 기자 일을 그만두고 목사님이 되었는데, 어느 날 한 중년의 남자가 스트로벨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제 인생에 미친 영향이 목사님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의 인사를 받은 그 목사님은 무슨 일이나고 물었고 그 중년남자는 4-5년 전에 실직을 당해서 그 신문사 편집실 바닥에서 쪼그리고 앉아 타일을 깔면서 스트로벨 목사님이 직장동료에게 전도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전도내용을 엿듣던 그 중년남자는 그 전도가 자기에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된 모습으로 스트로벨 목사님께 감사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16-17절)는 말씀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기관처에 인간의 객체를 연결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전도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자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 수 없는 모체의 건강 등에 문제가 될 경우 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이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하여 마음대로 낙태하는 사회가 되면 결국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낙태율이 높은 편이다. 회원국 가운데 15~44세 사이의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낙태율을 조사한 2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15.8%로 나타나, 다른 나라들보다 낙태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현행 ‘낙태죄’의 존치를 통하여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다르며, 도덕과 윤리가 사회의 근간을 지켜가는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금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두렵고 어두운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생명존중 정신을 지켜내서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올바른 결정을 하기 바란다.

동 정

원주세브란스 백순구 병원장



제5대 원주연세의료원장 겸 제21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에 백순구 교수(소화기내과)가 선임됐다. 취임식은 오는 3

월 22일(금) 원주의과대학 루기홀에서 진행된다. 백 원장은 1989년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3년 소화기내과 부임 이후 소화기내과 과장, 소화기센터 소장, 중앙연구실장, 교무부학장을 역임했다.

한정총 미혼모자 시설 지원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지난 2월 26일(화) 서울 상도동 소재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꿈나무(원장 박미자)를 방문하여 지원금을 전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자립을 위하여 애쓰는 미혼모들을 격려하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잠비아 국제 참파 카운다 박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연신원)과 신교대학은 잠비아 국제의 참파 카운다 박사를 전임 교수로 임용했다고 지난 3월 6일 밝혔다. 연세대가 아프리카 출신 학자를 전임 교원으로 임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참파 교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크와줄루-나탈 대학에서 아프리카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코미디언 유병재의 따뜻한 선행



국제 개발 협력 NGO 지파운데이션(대표 박충관)이 최근 국내 청소년 생리대 지원에 1천만 원을 기부한 코미디언 유병재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지난 3월 8일 밝혔다. 유 씨는 “몇 년 전 뉴스 기사를 통해 생리대가 필요한 청소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도울 방법이 있다고 해서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생명 중시를 위해 ‘낙태죄’는 존치해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낙태죄’의 위험 여부 문제를 놓고 예민하다. 현행 낙태죄는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서 금하고 있으며, 이를 행한 부녀와 낙태를 하게 한 사람(의료인)에게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 법률 조항에 대하여 지난 2012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후 다시 헌법소원을 내게 되므로 헌법재판소에서의 이에 대한 결정이 곧 임박(臨迫)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분위기라도 맞추려는 듯 지난 2월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인공임신 중절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행법인 낙태 처벌 규정에 대한 의견에서 75.4%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했다고 발표하였다. 그 이유로는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이

66.2%, 그리고 ‘안전한 낙태가 사회구성원의 권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84.2%를 차지했다고 한다. 결국 이런 주장들은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자기 주장만을 강조한 것과, 생명경시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나타낸 것이다.

물론 여성의 인권이나 건강도 지키고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법률을 ‘위헌’이라 하여 폐지한다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생명경시’와 같은 사회적 부정적인 현상들은 우리 모두가 떠안고 나가야 할 책임이 된다.

또 만일 낙태를 죄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 생명경시 현상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합법적으로 죽

어가겠는가?

생명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 성경에서는 생명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경외감을 갖도록 한다. 그러므로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겠다. 생명이 잉태되면 그때부터는 ‘생명여탈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낙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 건수도 상당히 줄어서 약 5만 건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낙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낙태 건수가 줄었다고 ‘생명 중시’ 마지노선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논리도 맞지 않는다.

요즘은 일선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바우대로 섹스할 권리’까지 주장하는 시대가 있다. 그런데 법률의 규정마저 없애버리면 이 사회에 도덕과 윤리가 심각하게 무너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면 여성들 자신이 더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가 될 것이 뻔하며 그만큼 여성들의 건강은 더 큰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여성들이 정말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할 경우 현행법으로도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면 유전적, 정신적, 전염성 질환, 강간, 전·인척에 의한, 그리고 임신이 지속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7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7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19년 3월 25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게로 참석여부를 3월 20일(수)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6일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임 우 재
총 무 목사 신 재 영

시론

이상원 교수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신학 윤리적 관점에서 ②

어떤 개인이 현실 속에서 실현이 불가능한 어떤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면 신경질적인 강박증에 사로잡히기 마련인 것처럼,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일종의 집단 강박증에 사로잡혀 구소련에서 2000만 명, 문화혁명에서 7000만 명을 잔인하게 죽이면서까지 꿈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사실상 동성애는 도덕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의료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유토피아입니다. 동성애는 성경이 말하는 규범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의 도덕적 규범에 어긋나며, 생물학적으로 볼 때 생식기관과 배설기관의 만남이라는 생물학적 상식에 반하며, 의료 보건적으로 볼 때 각종 성기와 장기와 관련된 심각한 감염을 피해 갈 수 없는 위험한 성적 관행입니다.

동성애를 하면서 건설할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는 없습니다. 이처럼 적어도 서구사회 안에서 신마르크스주의적인 성해방운동이 하나의 시대사조로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현 불가능한 성해방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강박증이 남들이 안 될 정도로 집요한 동성애 합법화운동의 배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의 정서가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 헌법에 동성애와 동성혼 허용조항을 집어넣으려는 시도, 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위에 두려는 비상식적인 시도,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법화, 초중고등학교의 전제교육, 동성애에 대한 모든 비판을 차단하는 보도지침,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인권위원장을 모두 동성애전환죄 인사로 인도적으로 배제한 조치 등과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성애 합법화운동은 그 전략과 방법론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적이고 혁명적인 해방운동이며, 일종의 강박증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에 대한 이성애적 규범이 철폐된 유토피아적인 사회를 꿈꾸는 것은 진정한 이상사회를 향한 인류의 잠재된 욕망의 병적인 표현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병적인 욕구의 분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교회는 이성애적 규범이 철폐된 사회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비판하면서 참된 이상사회는 성경이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설득력 있게 선포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근원적인 대응책입니다. 특히 마르크스가 등장하여 활동을 시작한 본거지가 영국이었었고, 당시 영국은 빈부의 격차가 극심한 사회로서 사실상 마르크스 혁명이 터질 곳이었습니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존 웨슬리가 등장하여 성령의 힘과 강력한 복음을 들고 탄광과 노동자들 속으로 뚫고 들어가 복음의 소망으로 이들을 위로하고 끌어들이는 일에 성공했기 때문에 영국이 폭력혁명의 마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II. 윤리적 배경 : 후현대주의적 상황윤리

고대 희랍철학에서 세계를 해석하는 방법에는 두 흐름

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피르메니데스의 정의 철학이고, 다른 하나는 헤라클리토스의 생성의 철학입니다. 피르메니데스는 존재는 생성도 소멸도 하지 않는 상태로 영원히 있는 것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헤라클리토스는 만물은 영원한 흐름 즉 끊임없는 운동과 변화 안에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철학의 역사라는 진지는 정의 철학과 생성의 철학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대철학의 흐름을 보면 계몽주의 시대는 이성이 사유의 중심이 되면서 이성을 통하여 변하지 않는 영구적인 형이상학의 수립이 가능하다고 본 정의 철학의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모더니즘 곧 현대주의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적 윤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19세기 말 직각론(intuitionism)과 정서론(emotivism)이 등장하면서 진지는 생성의 철학의 방향으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직각론에서는 이성적 사유가 아닌 직관이 진리 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고 보았고, 정서론에서는 직관은 곧 정서 또는 감정을 의미하므로 감정에 근거한 직관적 판단이 진리 혹은 옳고 그름의 척도가 된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직관이나 감정은 극히 주관적이고 각 사람마다 다른 것이므로, 직관이나 감정이 판단의 척도가 된다면 이제는 보편적인 진리나 규범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진리나 규범은 각 사람을 마다 다 다른 것이며, 공동체마다 다 다른 것이며, 시대마다 다 다른 것이라는 상황윤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철학적 윤리학의 사조의 영향을 받아 현대성윤리는 두 가지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성정체성은 생물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서 성정체성이 결정된다는 말은 성정체성은 생물학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이지만 여자로 자신을 규정하고 싶으면 자신의 성정체성은 여자가 되는 것이고, 여자이지만 남자로 자신을 규정하고 싶으면 자신의 성정체성은 남자가 되는 것이고, 남성과 여성을 오가고 싶으면 자신의 성정체성은 양성인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젠더(gender)의 기본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은 성정체성의 규정에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결론으로서 이성애적인 규범으로부터 성관계를 해방시켜 이성이나 동성이나를 불분하고 자유롭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성정체성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이성애적 성향을 타고난 사람들도 있지만, 동성애적 성향을 타고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선천적으로 이성애적 성향을 타고난 사람은 주관적인 인식에 있어서도 이성을 향하여 사랑을 느끼지만, 선

천적으로 동성애적 성향을 타고 난 사람은 주관적인 인식에 있어서도 동성을 향하여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세 영역에서 연구를 수행 또는 위탁한 후에 결과물을 가지고 동성애는 유전자, 뇌의 구조, 호르몬에 의하여 선천적으로 결정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알려진 과학적 연구들은 모두 재현에 실패했는지 통계조작임이 드러났든지, 아니면 해석을 잘못했음이다 드러나서 지금은 이런 주장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만일 유전자에 동성애적 성향이 내재해 있다면 일관성 쌍둥이의 경우에 한쪽이 동성애자이면 다른 쪽도 100% 동성애자라야 하는데, 실제 일치율은 20% 이내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동성애를 유발한다고 알려진 유전자 X28은 실제로는 동성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유전자임이 밝혀졌습니다. 동성애자의 뇌의 시상하부와 이성애자의 뇌의 시상하부의 크기가 다르다는 점이 동성애의 선천성 근거로 제시되었으나 시상하부는 동성애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남성 동성애자의 경우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여성 동성애자의 경우에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는 주장이 제시되었으나 호르몬은 성정체성의 결정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또한 동성애가 죄라는 비판을 피해 가기 위하여 동성애를 비판하고 있는 성경구절들을 아전인수 격으로 재해석하여 성경은 동성애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거나 동성애를 용인한다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이들은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 레 18:22 말씀을 신약시대에는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의식법에 속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거나 일반적인 동성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이방신숭배행위 가운데 하나를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의식법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되는 도덕법으로 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의식법을 범한 경우에는 며칠 동안 격리하는 정도의 처벌을 받았으나 도덕법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았던 반면에 동성애를 범한 죄는 사형의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동성애자들은 롬 1:26,27 말씀에 있는 순리와 역리는 특정한 사회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인류 보편의 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로마서 1장에서 3장의 문맥에서는 순리는 이성애를, 역리는 동성애를 가리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또한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고전 6:9 말씀에 있는 “남색하는 자”를 남성장부로, “탐색하는 자”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로 해석하고 있으나, 전자는 남성 동성애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자, 후자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 망언 강력 규탄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대다수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동성결혼을 부정하지 않고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망언을 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영국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영국남성이 한국에서도 부부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진정 사건에 대해서 각하결정을 내리면서, 인권위법에 따라 자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각하한 것일 뿐 동성결혼을 부정하지 않으며, 이 문제에 관한 정책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17년 개헌논의에서 인권위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을 때에, 강력한 국민적 반대를 분명히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다수 국민들을 무시하는 편향된 정책성을 보여주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현행헌법에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동성결혼을 인권위가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다수 국민들을 향한 도발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인권위는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곳 중의 하나인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 못하면서, 동성결혼한 영국인 남성의 부부 지위를 인정해 주기 위해 여론을 형성하려는 인권위의 정책성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인권위는 사회단체가 아니라 국민의 세급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정서와는 반대되는 편향된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2016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연구팀은 밝혔다. 우리나라 한자위 대법원은 동성애는 부모적한 성적 만족행위라고 판결하였다. 동성애는 에이즈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비정상적인 성행위인데, 이를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혼인으로 인정하는 주장은 건장한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려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인권위는 얼마 전에 한동대 사태를 통해 동성애와 함께 다자성에(난교)를 성적취향으로 인권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번에는 동성결혼과 함께 다자결혼, 근친혼까지 인권이라 주장하지 않을가 염려된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윤리와 도덕이 있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식이 성관계를 갖는 것을 법으로 금하는 이유는 단순히 유전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윤리도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여러 명의 남편과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것을 법으로 금하는 이유도 윤리도덕을 지키기 위함이다. 가장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는 것은 결코 인권이 될 수 없다.

2017년 개헌논의 과정에서 인권위는 헌법에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포함시키고, 혼인에서 양성평등을 삭제하여 동성결혼의 길을 열어놓으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광주 금남로에서 2만 명이, 대전시청 앞에서 3만 명이 반대하는 등 전국이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헌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대통령직속 헌법개정특별위에서도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을 포기하였는데, 또 다시 인권위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루려고 도발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권위는 그동안 동성애 반대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제정을 7번이나 시도하였고, 학교 교과서를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바꾸려 하였으며, 초중고는 물론 대학과 대학원의 규정에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키려 하였다. 인권위가 진정한 인권을 위해 일한다면 억압 받는 북한 주민과 탈북했다가 복속당하는 북한 주민을 위해서 백본의 일의 에너지라도 사용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 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인권위는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와 여론을 형성하려는 작태를 즉각 중지하라.

둘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권위가 자신의 폐해를 유지하기 위해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을 위해 일하지 말고, 힘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과 북한 주민들을 위해 앞장 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셋째, 왜곡된 인권에 사로잡혀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인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건장한 가정과 사회를 세우는 참된 인권을 위해 일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시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결혼을 주장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9. 3. 4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300개 단체 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348개 대학 3,239명 교수 참여, 한국교회 공동정책연대

(참여단체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단장회의,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한국교회명신도단체연합회, 한국기독교인연합회,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한국가족보안협회, 국민기만국민권장책반대비상대책위, 한국교회연론회, 한국교회법학회, KHTV)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혈몬산교회 부흥회 및 철야기도회

열방을 깨우는 혈몬산 기도의 집 (역대하 7:14)

금요 철야기도 안내

1. 나라와 민족 선교사들을 위하여
2. 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
3. 자녀들(영적문제) 가정문제

강사 : 임마누엘교회 신석범 목사
원장 : 김남순 목사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 합니다!

장소 및 문의

혈몬산교회 (담임 김남순 목사)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181번길 91-16(백곡리 산 113번지) 010)2415-2062



신석범 목사
임마누엘교회 담임



김남순 목사
혈몬산교회 담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http://agpgs.aogk.org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학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i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 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홈페이지: www.agtc.or.kr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사)예장연, 3.1절 100주년 국가기도회

민족복음화와 국가발전에 앞장설 것 다짐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대표회장 이광용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성서)총회(총회장 김노아 목사)가 공동주관한 '100주년 3.1절 국가기도회'가 지난 2월 27일 오전 11시 서울시 관악구 솔밭로 소재 세광중앙교회에서 열려 100년 전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외쳤던 선열들의 한성을 되새기고, 이날 외쳤던 선열들의 한성을 이어받아 민족복음화와 국가발전에 앞장서자고 다짐했다.

'대한민국 국민이여! 3.1정신을 상기하자'라는 주제 아래 열린 국가기도회는 삼일회장 변광능 목사의 사회로 대한민국과 통일을 위한 통성기도,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의 대회사, 예장보수총회 증경총회장 조요한 목사의 대표기도, 세계선교복지신문 방송회장 최명철 목사의 성경봉독, 김노아 목사(한기총 전 공동회장)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김 목사는 겔 37:22~23, 단 2:4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100년 전 일어났던 3.1운동은 온 국민의 가슴 속에 불을 붙였다"고 말하고, "우리는 이 정신을 이어받아



후손들에게 복음국가 된 대한민국, 복음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을 물려주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특별기도시간은 '나라와 복음통일을 위해' 예장보수총회 증경총회장 이후현 목사가, '대통령과 국가지도자들을 위하여' 예장합동전국연합 부총회장 하석수 목사가, '국가안보와 국민을 위하여' 예장성서총회 부총회장 조영구 목사가, '3.1정신과 사회와 경제발전을 위하여' 예장성서총회 부총회장 신승도 목사가, '한국교회 개혁과 세계선교를 위하여' 예장보수개혁정통 총회장

오선미 목사가 기도를 인도했다. 국가기도회는 계속해 CTS방송상임고문 최희범 목사·교회연합신문 사장 강준호 목사·(사)예장연 고문 송기호 목사의 축사, (사)예장연 고문 김원식 목사의 격려사, 예장기독교총회 총회장 손영란 목사의 헌금기도, 예장비전총회 총회장 차요한 목사의 3.1절 선언문 낭독, 3.1절 노래·한민족통일의 노래 제창 후 예장합동전국연합 총회장 민철진 목사의 인도로 만세삼창을 한 후 (사)예장연 고문 김수영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화제의 신간 / 영적회복을 위한 비밀 열쇠

뜨거운 찬양 사역자, 열정적인 설교가 서정복 목사의 신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돌아봄의 시간

<하나님의 미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담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좌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언가 바로 보는 데 도움이 되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항상 끼고 다니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끼고 주변을 돌아보고,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안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안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평소에 강조했었는데, 이 책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과 찬양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이 분리ಾಯ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담대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토록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거리에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로서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한 자신감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약 4:8)

-머리말 중에서
구입문의 (063)625-0690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대표고문



조용목 목사
정적위원장

교단총회장



임웅재 목사
총회장

지도고문



김인찬 목사
증경총회장

지도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뽕앤교회

회장



신재영 목사
새김전교회

상임부회장



김기진 목사
제천양문교회

상임부회장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부회장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된교회

부회장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19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고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직전총회장	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증경회장	증경회장	회장	상임부회장	상임부회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인교회)	김상용 목사 (영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 (은혜와인교회)	전동욱 목사 (세스교회)	김용덕 목사 (영동제일교회)	임종달 목사 (진주은혜와인교회)	최광덕 목사 (일신은혜교회)	이창재 목사 (진부제일교회)	김인규 목사 (은혜와인교회)	김양민 목사 (독일제일교회)	임웅재 목사 (신정리순복음교회)	김인찬 목사 (영신교회)	정부용 목사 (대림뽕앤교회)	엄기철 목사 (은혜와인교회)	김희태 목사 (간현교회)	신재영 목사 (새김전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양문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부회장	부회장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총무	상임부총무	사무국장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된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임영광 목사 (연천순복음중앙교회)	오승욱 목사 (천안서목교회)	황용연 목사 (은혜와인교회)	김병국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정석현 목사 (복동순복음교회)	백영자 목사 (북동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기정순복음교회)	김종연 목사 (의정북은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빛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빛교회)	정광호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윤혜경 목사 (순복음주천교회)	조선남 목사 (대림뽕앤교회)	김병호 목사 (순복음영복교회)	박종렬 목사 (예수사랑교회)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서기	재무	회계	감사	감사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성기찬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김남수 목사 (보은교회)	김연호 목사 (영천순복음교회)	김명주 목사 (순복음빛교회)	임형준 목사 (순복음빛교회)	박정진 목사 (은신교회)	양은혜 목사 (경조교회)	한명점 목사 (은혜와인교회)	최남성 목사 (동경순복음교회)	윤정수 목사 (진주은혜교회)	권택현 목사 (순복음아름교회)	이희숙 목사 (신주순복음우리교회)	홍현자 목사 (시창평화교회)	정환무 목사 (순복음빛교회)	최승수 목사 (순복음사랑교회)	주창민 목사 (순복음빛교회)	우광덕 목사 (해미루대교회)	경예스터 목사 (예수사랑교회)
회원	회원	회원															
조길수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배용환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옥보애 목사 (소망농아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문의 | 회장 신재영 목사 HP : 010-7457-9768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HP : 010-3698-5764

각막이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각막기증 중도 포기 막으려면 시스템 개선돼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각막기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3월 6일(수) 열렸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오세재 의원이 주최하고 (제)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주관해 진행했다.

이식대기자보다 각막기증이 더 많은 미국의 아이뱅크시스템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미국 LA지역의 장기구득기관이자 아이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 ‘One Legacy’의 톰 본 회장이 강연자로 나서 미국 각막기증 현황과 각막기증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아이뱅크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소개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각막기증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아이뱅크’가 62개 존재한다. 아이뱅크에는 일정 교육을 받아 자격을 갖춘 각막적출 전문기인 테크니션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어 각막기증자가 있는 현상이 어디든 신속하게 출동하고 있다. 안과 의사들이 직접 각막적출을 위해 출동하는 우리나라의 시스템과는 가장 다른 점이다. 또한, 아이뱅크에는 각막기증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코디네이터도 존재해 기증자와 유가족들이 보다 쉽게 각막기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이뱅크를 통해 미국에서는 지난 2016년에 82,994건의 각막기증이 이뤄졌고, 이 중 26,057개의 각막은 해외에 있는 각막이식 대기 환자를 위해 기증됐다.

톰 본 회장은 “세포 수가 많은 건강한 각막을 미국 내 각막이식 대기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이식하고, 이에 비해 세포 수가 적고 연령대가 높은 기증자의 각막은 수출하거나 연구용으로 사용한다”며 “국가는



국민에게 양질의 각막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의료선진국인 만큼 법과 제도가 보완된다면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의사들은 환자들의 치료에 집중하고, 각막적출과 같은 일은 전문기을 양성해 맡긴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각막기증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체조직인 각막이 이법적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속해있다. 이에 각막기증 건이 발생하면 의사가 출동해 각막을 적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씨의 사례처럼 각막 적출을 위해 의료진이 출동할 병원이 없는 지역이 있어 각막기증의 경우 지역적 격차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면적과 인구를 담당하면서도 아이뱅크 시스템을 통해 지역적 격차 없이 효율적으로 각막기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씨의 아버지와 같은 각막기증 희망 등록자는

우리나라에 총 144만 명이 있다. 이들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 가장 실현할 확률이 높은 기증은 사후 각막기증이다. 그런데 막상 이들이 실제 각막을 기증하고자 할 때 제대로 된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 앞으로 각막기증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를 위해 각막기증만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인 ‘아이뱅크’의 도입이 시급하다. 아이뱅크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인체조직인 각막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인체조직인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옮겨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의사 대신 각막적출 전문 인력이 출동해 신속하게 각막기증 건을 처리할 수 있다. 이처럼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각막기증이 활성화된다면 각막을 이식받기 위해 20여 년을 기다린 노가자 씨처럼 보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오랜 시간 견뎌야 하는 환자들의 대기기간을 줄일 수 있다.

3.1운동 백주년 기념 한국교회 포럼

한국교회연합, 인간의 존엄성·창조의 원리 지켜야

3.1운동 백주년을 맞아 종교와 정치의 상생과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교회 포럼이 지난 3월 7일 정계교계 지도자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100년 전 한국교회가 불굴의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어났던 3.1정신을 이어받아 오늘의 한국 기독교가 사회 속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고 희생과 봉사로 나라와 국민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확산되고, ‘인권’을 기강한 불건전한 사조들과 국가 정책에서조차 이들을 옹호하는 정책으로 사회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진단과 건강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주최하고 국회조찬기도회(회장 김진표 의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행동하는자유시민(대표 이연주 의원)이 공동 후원한 이날 포럼은 ‘종교의 공익성과 자유’를 주제로 오전 10시에 개회해 식전행사와 1부 예배, 2부 축하, 3부 포럼 등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김바울 목사(호헌 증경총회장, 선교위원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식전행사는 국가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만세삼창으로 이어졌으며 이어 김효종 목사(상임회

장)의 인도로 개회예배가 시작되었다. 예배는 원종문 목사(상임회장)의 기도, 김병근 목사(서거)의 성경봉독, 마리아중창단의 특송 후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가 ‘우리굴로 광풍을 피하라’(창 27:9-19)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권태진 목사는 설교에서 “3.1운동 100주년의 정신은 자유, 평화, 독립인데 인권, 인간의 존엄성, 창조의 원리를 항상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오늘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은 이 시대가 저주받을 일을 하지 않도록 알려줘 실패가 없도록 하기 위해 사랑의 동기에서 행하는 것”이라며 “오늘 모인 정계와 교계 지도자와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 곧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2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면서 “한반도에 핵무기가 폐기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에 다시는 불행한 전쟁이 없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 가운데 번영된 나라가 되도록 더욱 뜨겁게 기도해야 하며, 우리 모두가 혹 거센 풍랑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3.1운동의 불굴의 신앙정신으로 무장해 승리하자”고 역설했다.



예성부흥사회, 36회 정기총회 개최

대표회장 윤맹석 목사, 상임회장 노윤식 목사 선출

제36회 예성부흥사회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에 위치한 장호원반석교회(전승환 목사)에서 개최됐다.

첫째 날 오후 7시 유광선 목사(35회기 대표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김기용 목사(공동회장)가 기도, 김신호 목사(35회기 부회장)의 성경봉독 후 윤기순 목사(총회장)가 참석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부흥사회(눅 10:29-3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총회와 전국교회와 교단간 학원, 예성 부흥사회와 회원교회들의 부흥과 성장, 나라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또 예배에서는 나세웅 목사(증경 총제)의 격려사와 이영훈(증경 총제), 이경준(교단 총무) 목사의 축사가 있었고, 정성환 목사(사무총장)의 광고 후 이상문 목사(총제)의 축도로 마쳤다.

예성 부흥사회는 교단 분열로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던 70년대 초 예성 교단의 보수적 정통성과 궁지를



상실하지 않고, 교단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 먼저 성령충만해야 한다는 총회 차원의 요구에 의해 태동하여 조직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성 교단의 영성회복과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총재 이상문 목사(두란노교회) △대표회장 윤맹

석 목사(벧불교회) △상임회장 노윤식 목사(주님앞에 제일교회) △사무총장 정성환 목사(예전교회) △서기 전승환 목사(장호원반석교회) △부서기 김성은 목사(시흥중앙교회) △회계 심상훈 목사(교은교회) △부회계 최윤영 목사(거룩한씨성동교회).

장례식을 성경적 천국환송예식으로

성경적인 전문 천국예식장 건립추구

천국환송문화운동본부(총재 김한수 목사, 권녀머꿈교회 담임)가 한국교회 앞날에 잘못된 장례문화를 솔직하게 인정, 회개하고 제2의 종교개혁 심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부활의 천국환송이 정착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천국환송문화운동 총재 김한수 목사·상임본부장 최규석 목사·본부장 노시열 목사 등은 지난 2월 2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5가 가나니집 다사랑에서 ‘오직성경·오직영광·오직부활의 천국환송’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그리스도인 입에도 장례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잘 살다가 마지막에 고인이 되는 것은 성경에 어긋난 부활신앙이 아닌 비성경적 행위로서 이제는 온전히 성경발음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체가 되는 부활의 천국환송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천국환송문화운동본부 관계자들은 “부활의 성경보다는 사탄리즘의 우상이 혼합된 세상의 전통장례식을 따랐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부활신앙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 성경적인 전문 천국예식장 건립과 각 신학대학에서의 천국환송학 정규교과과정 설치, 교회마다 성경적 용어와 용품의 부활천국환송예식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더 이상 우상과 문화가 기독교를 장악하지 못하고 오직 부활신앙으로 마지막까지 부활이 실현되어 온전히 지켜질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장례식에서 부활의 영생인 성경적 천국환송예식으로 하 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 천국환송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정직과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

성원 박영률 목사의 칼럼집

봄은 언제나 겨울을 이긴다



▲박영률 저(사인, 교육학박사, 철학박사)
하나로 선 사상과문학사 간
p235 / 값 15,000원

이 책은 정직과 진실을 추구하는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현역에 있을 때나 떠난 후에도 침묵하지 않고 할 말을 하면서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것이 죄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것도 죄”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성원 박영률 목사가 7년 간 복음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묶어서 발간한 책이다.

박영률 목사는 목회자로, 교육자로, 문학인으로, NGO운동가로 43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왔다.

저자 박영률 목사는 이번 칼럼집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칼럼마다 날짜를 밝혔으며,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저자는 침묵하지 않고 있었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책의 수익금 모두는 특수지역의 교육선교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박영률 저(사인, 교육학박사, 철학박사)
하나로 선 사상과문학사 간
p235 / 값 15,000원

목회자교육원 2019년 봄학기 개강

한장총, 봄학기 3월 5일 개강예배 드려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목회자교육원(원장 박봉규 목사)은 지난 3월 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연수실에서 2019년 봄학기 개강예배를 개최하고 새학기를 시작하였다.

개강예배에서 한장총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답전 6:11~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디모데와 같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구로부터도 칭찬을 듣는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눈물의 신앙으로 감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목회자의 자세”라며 “오늘 교육에 참석한 분들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제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귀하다. 이런 의미에서 한장총 목회자교육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를 하였다.

목회자교육원장 박봉규 목사는 “한장총 목회자교육

원이 목회자재교육을 위하여 매년 봄과 가을 각각 12주의 과정을 15년간 이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라며, “특별히 목회현장에 있던 목회자들이 신학 교수들을 통하여 신학의 동향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목회자 상호간의 교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매우 많았던 것이 이 교육과정의 유익이었다”고 말하였다.

이번 봄학기 12주 동안 과목 중에는 ‘기독교의 영성’(양영태 박사), ‘기독교와 정치’(유은상 박사), ‘누가복음, 사도행전 새로 읽기’(소기전 교수), ‘케지사경회의 영성’(신현수 박사), ‘성경적 상담학’(채규만 교수) 등이며 이는 목회현장에 필요한 과목으로 배정이 되었다.

한장총은 세미나실 확장 공사를 3월 9일까지 완료하고 다음부터는 한국기독교교회관내에 있는 한장총세미나실에서 교육할 예정이다.

제17회 YMCA 청소년문학상 개최

안양예술고등학교 권승섭 ‘안경’ 대상 수상

28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이해 서울YMCA(회장 이석하)와 28독립선언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가 함께 제17회 서울YMCA 청소년 문학상을 개최했다. 올해로 116주년을 맞이한 서울YMCA는 청소년이 미래의 일꾼으로 거듭나기 위해 'Peace Maker(평화의 일꾼)'을 모토로 청소년 운동을 전개해 가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YMCA 청소년 문학상'을 전개해 청소년들에게 글쓰기를 통해 인문학적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미래의 꿈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왔다.

200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청소년 문학상은 전국의 청소년(중·고등학교생 연령)들이 운문 또는 산문 분야를 선택해 자유로운 주제로 예선작품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선발된 6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본선(백일장)을 치러 이중 4명을 시상했다.

3월 2일, 서울YMCA 우남 이원철홀(대강당)에서 본선을 거쳐 선정된 수상자는 동상 ‘안경 위의 나비’(최연우, 성덕여중), ‘소금꽃’(이서희, 불암중), 은상 ‘빛어야하는 안경’(권희수, 진명여고), 대상 ‘안경’(권승섭, 안양예고) 총 4명이 수상했다.

박찬일 심사위원장(추계예대 교수, 시인)은 심사평에서 “예년에 비해 우리 청소년들의 글 쓰는 실력은 매우 높았으나 도전 정신이 부족한데, 과거 예술인들처럼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문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서울YMCA는 청소년 문학상이 글쓰기에 재능이 있고, 문학감수성이 뛰어난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청소년 순수문학의 장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월드뷰티헨즈, 이사회 · 정기총회 개최

신임이사 선출 및 사업계획 · 예산안 승인

국제뷰티구조개발 NGO (사)월드뷰티헨즈(WBH, 이사장 장현일, 회장 최예스 신한대 교수)는 지난 2월 22일 마포법원사무실에서 제8차 이사회 및 제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8년 사업보고와 수입지출 예산 의결과 함께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했다.

이날 총회에서 2019년 K-뷰티 서비스 사업 확대를 위해 헤어미용, 메이크업, 피부, 화장품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 최성임 교수(경인여대 피부미용과), 진용미 교수(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이정민 교수(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홍미라 교수(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임진경 박사(주, 아이엘비이오

이사)를 신임이사로 선임했다.

또한 법인청리 이사인 권오혁 교수(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김민 교수(신한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김주연 교수(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김애성 교수(한성대학교 뷰티아트과), 이미나 대표(SPA the EL), 최세정 수석(주, 이모레퍼시픽)은 연임하기로 승인하였고 조현주 감사의 2018년도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가 있었다.

올해의 신규 사업으로는 뷰티산업체와의 공동으로 뷰티서비스 활동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 12월 헤어디자인 전문그룹 id HAIR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서비스 대상과 기관을 더 확대시

켜 더 많은 소외 이웃들이 전문 뷰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을 의결하였다.

(사)월드뷰티헨즈는 K-뷰티 헤어미용, 메이크업, 피부미용, 네일, 화장품 등 5대 분야의 전문 교수와 뷰티기관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 중앙회를 비롯하여 광주 및 경북지역에서 노숙자, 쪽방촌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능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비롯하여 한 부모와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뷰티서비스와 뷰티기술교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필리핀, 체코, 나미비아 등 아시아, 아프리카를 포함한 저개발국 주민을 대상으로 이사업업을 확대시켜 진행하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 미혼 한부모가정 지원

홀트아동복지회(회장 김호현)는 위기 미혼 한부모가정을 긴급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젝트 ‘희망드림’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2018년에 이어서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진행되는 ‘희망드림’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미혼 한부모가정에 신속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미혼 한부모가정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미혼 한부모가정으로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에서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발표는 30일에 실시된다. ‘희망드림’ 지원사업은 미혼 한부모 개인이 직접 홈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 또는 공공기관에서도 긴급지원이 필요한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www.hol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전도자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택하여 하나님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전도자로 임명하신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전도자로 골라 뽑으신다.

그중에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세를 통한 복음전도자의 사명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신다. “이제 이스라엘 지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지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출 3:9-10). 하나님은 모세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모세는 출 12:1-30 말씀에 양을 잡아 피를 내고 고기는 구워먹고 피는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출 12:23).

또한 모세는 바로가 욕백송의 특별병기 앞에서 굴하지 않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는 장면이 출 14:13-16에 기록되어 있다. 출애굽기 전체가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는 전도행전으로 가득 차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성경충만 반야(행 1:8)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한다. 100번 찍어 넘어뜨릴 나무를 단 한 번에 찍어 넘어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위해 몇 백만 번일지 모를 도끼질을 먼저 해야 한다.

능력전도는 많은 기도로 무장하고, 전도훈련이 되어야 현장에 나가서 사도들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다. 한 시간에 12명 이상 전도 되는 능력전도를 우리교회에서도 3차례 세미나를 열어 보여준 가족세트전도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가족세트전도는 이 시대의 대안이고, 개척교회가 3개월 내에 살아나는 유일한 전도의 길이라 생각되어 적극 추천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가족세트전도서울광진구자부장
정향길 목사 올림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예방 7. 헛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서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험담

- 영동포에서 목회하고 있는 박00 목사님은 해마다 감기로 인해 불편한 일이 많았는데 옥금수(소금물)로 양치를 하고난 후 감기도 걸리지 않고 입냄새도 사라져서 감사하다는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 부산에 사는 권00 권사님은 풍치로 늘 음식 먹기도 불편했는데 옥금수(소금물)로 양치하고는 많이 좋아져서 감사하며 재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입니다”

전국의 교회에서 사랑의 바자회 또는 이웃돕기 선교회 등에서 판매를 위해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총회임원 및 지방회임원)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본 규칙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이라 한다(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1. 본 교단의 부흥발전과 오직 성경적인 교단운영으로 국내 외 선교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임원을 선출함에 있다.
2. 총회를 섬길 의롭고 진실한 임원을 선출할 때에 세속적인 수단, 방법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총회원들이 서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시켜 교단 발전에 헌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원의 후보 자격

1. 총회임원 자격기준은 헌법 제84조에 의하고 지방회의 임원은 헌법 제76조에 의한다.
2. 임원 후보 등록을 하려는 자는 헌법 제73조에 의거, 총회와 지방회의 상회비 연체가 없어야 한다.

제4조 총회임원 후보 등록 및 운영사항

1. 총회임원 후보자의 등록 서류는 직접 또는 대리인이 등록 마감일 전까지 총회본부에 제출하고 총회본부의 접수

당지는 제출자의 일화에 서류 목록을 확인한 후 봉인한다. 단, 제출한 서류 및 등록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총회 임원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는 등록마감일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위")가 개봉하여 서류심사 후 임후보 등록 가·부를 임후보 당사지와 총회임원회에 통지한다.
3. 총회임원 후보자는 지방회임원회의 추천과 총회원 10명 이상의 서명 추천이 있어야 한다.
4. 등록한 임후보자의 기본정보는 선거위가 총회 홈페이지, 총회신문, 우편으로만 총회원에게 공지한다.
5. 선거위시행규칙을 위반한 임후보자 및 총회원은 즉시 선거위가 소환 조사할 수 있으며, 범법자로 판단이 되면 즉시 재판위원회에 회부하고, 재판위원회는 신속 처리하여 선거위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선거위는 총회 임원회에 통지한다.
6. 총회임원 임후보자가 선거위 시행규칙 위반 시에는 선거위는 임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 후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선거위는 해당 직무를 정지하고 재판위원회에서 유죄판결이 되면 당선은 무효로 한다. 결원된 임원은 정책위원회의 추천으로 집행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7. 미등록 발생 시 교단헌법 제84조 3항 4호에 의거, 정책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서류는 선거위에 제출한다.
8. 등록비는 총회장 임후보자는 1천만원, 부총회장 임후보자는 500만원, 총무 임후보자는 300만원, 그 외 임원 임후보자는 각 200만원씩을 총회 재정부에 입금하여야 한다.

* 입금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임원 임후보자 선거운동의 규제사항

1. 총회원 상호 금품 제공 및 요구행위와 식사접대행위
2.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유언비어 유포행위
3. 관공모임을 주선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4. 총회 시숙식, 오락 및 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5. 인터넷, 유언물을 통한 선거운동
6. 기타 선거운동
7. 상기의 규제사항은 선거위 공고일부터 정기총회 후 10일까지 적용한다.

제6조 총회임원 임후보자의 제출서류: 각 1부씩

1. 임후보 신청서(총회양식)
2. 안수 증명서 (혹시는 총회에서, 장로는 지방회에서 발행)
3. 상회비 납입증명서(총회, 지방회 발행)
4. 재직증명서(혹시는 총회, 장로는 소속교회)
5. 병합판 사진(6개월 내 촬영) 3매
6. 임후보 등록비 영수증 사본
7. 지방회임원회 추천서
8. 총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서
9. 이력서 및 교단 내 약력 소개서
10. 임후보 소견서(M용지 1장 분량)
11. 가족관계증명서

제7조 부칙

시행규칙은 총회임원회를 통과한 즉시 발효한다.

2011. 3. 7. 제정
2012. 3. 5. 일부 개정
2012. 4. 16. 일부 개정
2013. 3. 5. 교단명칭 변경
2015. 3. 3. 일부 개정

1. 등록마감 : 2019. 3. 29(금) 17:00까지
2. 등록장소 : 총회본부
(접수담당자 : 사무국장 목사 윤기석)
3. 등록방법 : 직접 또는 대리인이 등록
4. 문의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인찬 목사
(010-3033-0073)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정의섭 목사
(010-8145-4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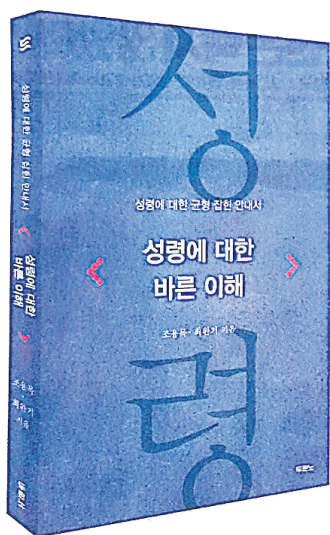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목사 김 인 찬 서기 목사 정 의 섭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 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인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주의, 변형신학으로 변질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 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임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가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 나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령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시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 저자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 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이다.
- 자 **최완기 목사**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19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학장 한 명 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김 양 인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김 상 우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초대시

이제인 // 은혜와진리교회 장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입술은 주님 곁에, 몸은 멀리 했음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저는
대답은 더 크게, 함께 있음은 짧게 했음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기다리실 때
저희 인생이 그 기다림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서 하나님 뜻을 달리 해석하려 했던,
참으로 바보였던 저는.....

이제야 한 자쯤 자라, 이 모든 것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았을 때
낡은 가족부대에 얼룩진 눈물만 담았나이다.
깨어진 사금파리 같은 모났던 내 삶이

많은 날, 모래에 깔리고 파도에 씻긴 뒤
옛 흔적만이 남은 조약돌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성큼 다가와 계심을 느낍니다.

오 주님, 숨결이 들립니다.
부르실 때보다, 찾으실 그때보다
참으로 두렵고 떨림을 고백합니다.

나의 고백중에서

한교연 바수위, 이단 사이비에 강력 대처기로

성경의 진리를 왜곡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행위 경계해야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바튼신앙수호위원회(위원장 정철욱 목사)는 지난 3월 7~8일 경기도 안산 서원호텔에서 소속 상임위원과 전문위원 전체 연수교육 및 발표회를 갖고 한국교회와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이단 및 사이비집단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위원 모두가 철저한 자기반성과 신화로 무장하여 이단사상과 사이비집단에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위원장 정철욱 목사의 사회로 드린 예배에서는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가 위원들을 격려했으며, 이어 박요한 목사, 이재훈 목사, 진용식 목사, 현문근 목사, 강경호 목사, 한창덕 목사, 이석민 목사 순으로 연구발표를 진행했다.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일부 교회가 이단사이비에 미혹돼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튼신앙수호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이단사이비를 마구 만들어 내서도 안 되지만, 성경의 진리를 마음대로 해석해, 교인들을 미혹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한기총 이대위가 이단 해체를 결정한 변승우 목사에게 전체 위원들의 발언을 청취했으며, 이어서 전문위원들은 시온성교회, 신천지, 동명번개, 삼신론, 양태론, 이단연구기로 활동하는 이인규 씨, 박형택 목사의 삼위일체론 등 다양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부 유일신 사상 공청회를 오는 3월 26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예홀에서 조직 신학자인 서철원 교수와 예정함동 인준 미국 버지니아크리스천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토마스 리 총장을 강사로 갖기로 했다.

공청회에는 미주 세이언 박형택 목사를 비롯한 이인규 목사, 김순관, 백남선, 한선희, 조남선, 김성환, 이태경, 이종명 등 관계자들을 초청하기로 했으며, 논쟁 당사자인 진용식 목사도 함께 초청하기로 했다.

바수위는 매일 한 차례씩 정례 모임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구 발표하기로 하는 한편, 연구 자료를 공유하고, 한국교회 앞에 그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사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양측 대응의 윤곽이 나오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에게 문서를 건넨 만큼 미국 입장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 폐기 문제는 다시 협박과 협상의 우여곡절이 불가피해 보인다. 북한은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이 나올 수도 있고, 남북 협력을 부추겨 한·미 균열 확대를 시도할 수도 있다. 이를 비추어 보건대 북한은 체제가 붕괴할 정도의 압박이 없으면 결코 핵무기를 전면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 사실이 전 세계에 공개된 셈이다.

북한이 스스로 폐기했다고 공표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복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만든 평양 외곽 신유동 미사일 단지도 가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여러 전문 기관에서 나왔다. 동창리 재가동 작업이 2월 16일부터 이달 2일 사이 시작됐다는 게 사실이라면, 북한은 하노이 회담 실무 협상을 하면서 이런 준비도 병행한 셈이다.

미국 입장은 단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장 복구가 사실이라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똑같은 조랑말을 다시 사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런 반응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자체에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지난 1년간의 협상 프로세스와는 다른 접근을 했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북한 핵의 최전방 피해국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및 압박 공조에 앞장서야 한다. 하노이 회담 때 북측이 유엔 대북 제재 제2270호 등 2016년 이후 채택된 5개의 유엔 제재안 해제를 꼭 짚어 요구한 것은 효과가 그만큼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앞장서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저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북핵에 국민이 불모로 잡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대북 제재 공조 강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핵은 재앙임을 깨닫고 핵폐기만이 정상 국가들과 교류와 협력을 통한 번영의 길임을 인정하고 완전한 핵폐기를 결단하도록 중재해야 한다.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전쟁 같은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다행은 전쟁 직전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 우리 힘만으로는 제대로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

국민과 한국교회 동성결혼 절대 반대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영국에서 결혼한 뒤 결혼이민을 신청한 남성 커플이 부부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진정서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권위법에 따라 지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각하한 것일 뿐 동성결혼을 부정하지 않으며 이 문제에 관한 정책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히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인권위가 동성결혼을 부정하지 않으며 정책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의 운운하는 것은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인권위는 이미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동성애자 축제에 직접 참여하여 인권위원장이 축사를 하는 등 인권지상주의의 전횡을 일삼고 있다.

또한 인권위는 남성간 항문성교를 금지한 군형법 제 92조 6항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성애와 이단 종교를 비난하면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과 인권기

본법, 인권조례의 제정, 그리고 헌법개정을 집요하게 시도하고 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세워놓고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교, 언론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한편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 감염경로라는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인권위의 중단없는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는 우려와 불안을 그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남자매느리와 여자사위를 두게 되어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가 길기는 패배가 있다. 나라마다 윤리도덕이 있고 미풍양속이 있는데 이 같은 행태는 반인륜이요 재앙이다. 가정을 정성적으로 지키는 권리가 더 큰가 동성애자의 권리가 더 큰가.

인권위의 패륜을 옹호하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한국 교회는 동성결혼을 절대 반대한다.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응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귀한 헌신으로 시골마을 교회가 세워지도록...

전남 무안군 해제면 순복음은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름이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바닥에 물이 차올라 성전 재건 축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전남 무안갯벌에서 염전을 하는 안수집사님께서 건축재정을 위해 '무안 천일염'으로 헌신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무안 천일염'의 판매수익금을 새 성전 건축에 보태어 만민이 예배하는 성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성전 건축에는 아직도 많은 도움과 후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귀한 헌신으로 시골마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기도와 함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만풍염전에서 생산한 100% 무안갯벌 천일염으로 각종 미네랄과 유기물이 풍부한 친환경 갯벌염입니다. 갯벌염전은 청정해역의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햇빛과 바람에 의해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품질이 매우 우수하며 안전합니다.

무안갯벌 천일염

100%무안갯벌 천일염

만풍작목반

구입문의 010-8060-1141

계좌 농협 628-02-097358 예금주 왕상엽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2019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교역자국 춘계 단합 기도회

주 제 : “이슬같은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보자”(호 14:5~6)

- 일 시** | 2019년 4월 29일(월)~4월 30일(화)
월요일 오후 3시부터 접수
- 장 소** | 순복음반송교회(한순남 목사 시무)
부산 해운대구 신반송로 163 교회 : 051-544-9155
- 대 상** | 전국 여교역자국
- 문 의** | ① 국장 한순남 목사 (010-2853-8190)
② 차장 김바울 목사 (010-8652-9340)
- 계좌번호** | 농협 352-1333-4784-13(한순남)
- 회 비** | 1만원

2019년 춘계 단합 기도회 일정표

4월 29일(월)	4월 30일(화)
	7시30분 아침식사
	8시30분 폐회예배
	10시 부산탐방
	11시 점심식사 후 개교회로
3시 접수	
4시 개회예배	
6시 저녁식사	
7시30분 부흥회	
9시30분 숙소로	

초대의 글

할렐루야!

새싹이 돋아나고 꽃망울을 터트리는

새 생명의 아름다운 계절에 남쪽의 따뜻한

바닷가 부산에서 여교역자국 춘계 단합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수고 하시는 여교역자 동역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다 모여서 성령충만 은혜와 충전의 기도 시간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살롱

- 여교역자국 국장 한순남 목사 올림 -



국장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지부장들은 참석 여부 및 인원파악을 하여 4월 15일까지 알려 주십시오.
(숙소예약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임종재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엘교회



국장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조직

임원단

차장	기획부장	홍보부장	행사부장	복지부장	선교부장	섭외부장	사회부장	찬양부장	예배부장	봉사부장	정보부장
순복음진리교회 김바울 목사	일산엘교회 조영란 목사	회복순복음교회 김순자 목사	예천순복음교회 최영희 목사	순복음경동교회 이경자 목사A	순복음침례교회 조은주 목사	기장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군말순복음교회 김종애 목사	북동순복음교회 백영자 목사	성광교회 최정희 목사	순복음기쁨과기쁨교회 이명순 목사	대화순복음교회 안선자 목사
서울중부지교회 지부장	서울중앙지교회 지부장	경기지교회 지부장	경기중앙지교회 지부장	경기남지교회 지부장	경기북지교회 지부장	일산지교회 지부장	김포지교회 지부장	대전지교회 지부장	충북지교회 지부장	충남지교회 지부장	청주지교회 지부장
시립과평교회 홍현자 목사	예수왕교회 정애선 목사	온누리순복음교회 최경자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시냇가예심온나무교회 표현자 목사	동성한성교회 서석자 목사	순복음평안교회 실수자 목사	임마누엘교회 이정애 목사	목자교회 김현시비 목사	대청산기도원 임연일 목사	솔로몬순복음교회 권옥자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김문자 목사
경남지교회 지부장	영남동지교회 지부장	부산지교회 지부장	부산동지교회 지부장	전북지교회 지부장	광주지교회 지부장	호남지교회 지부장	인천지교회 지부장	은진지교회 지부장			
동명순복음교회 김덕숙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이순애 목사	하늘소망교회 김경옥 목사	순복음우리교회 황연선 목사	순복음우리교회 이화숙 목사	순복음길교회 황희숙 목사	순복음중앙교회 정복례 목사	순복음성기교회 신은혜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심연숙 전도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 여교역자국

국장 한순남 목사